■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27-256.
http://doi.org/10.17948/kcs.2021..91.227

「謾翁夢遊錄」의 형상화 양상과 특징

양혜승(楊惠勝)*

목 차

1. 들어가며
2. 조선후기 문화적 경향과 자기 서사의 형상화
3. 「만옹몽유록」의 형상화 양상과 특징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단순한 서술구조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조선후기 문화적 경향과 문학 양식의 변모를 차용하여 작품화한 「만옹몽유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작품은 자유로운 서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몽유를 전개하고 있다. 즉자적 자아 및 관심을 드러내는 형상화 방식은 '자기서사'라 할 수 있는데, 사변성이 글감의 소재로 확장된 것이다.

이 시기 한문산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小品文은 단형화와 사변화를 통해 전성기를 맞았다. 夢記는 사실적인 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몽유록과는 변별되었지만, 새로운 형태로 반경을 확장시킨다. 山水遊記는 산수유람의 유행으로 출현했는데 몽기의 소재로도 한 유형을 이루었다. 이런 臥遊型 몽기는 18세기부터 시도된 양식적 실험 중의 하나이다. 「만옹몽유록」은 이런 문학의 양식적 변화와 교섭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다.

*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강사.

「만옹몽유록」의 특징은 비판과 토론의 부재와 유람을 하는 여행 서사인데, 이는 仙緣과 유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작품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간이 나타난다. 몽유자를 꿈 속으로 이끄는 선계와 '중국명승지'라는 현실의 공간이다. 내용면에서는 遇人 모티프와 유람(臥遊) 모티프가 혼효된 특징을 보여준다. 선인은 몽유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知我者와 유람의 안내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조선후기는 자신을 비하하는 명명법을 쓰는가 하면 개성적인 글쓰기와 사변적 경향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런 특징은 작자의 명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독특한 서술구조 및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옹몽유록」은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나 서술구조에 있어 몽유록의 양식적 역동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양상을 겪었던 타장르와의 교섭을 통해 19세기 서사장르의 특징과 문예적 현상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주체의 사유를 표현하는 자기서사로 형상화된 것이다.

주제어: 「만옹몽유록」, 단형화, 문학양식, 변화, 교섭, 자기 서사, 문화 경향.

1. 들어가며

몽유록(夢遊錄)은 15세기부터 애국계몽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몽유록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첨예한 비판과 진지한 문제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나 몽유록은 18세기부터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모의 양상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몽유록의 주제가 빈곤해지고 퇴조한 것[1]으로 보기도 했지만 조선후기 몽유록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몽유록의 위상을 확인한 연구[2]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소개된 19세기 몽유록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19세기에 나타난 일부 몽유록에 대한 평가는 많이 절하되어 있는데, 19세기 몽유록의 양식적 변이 양상, 문화경향의 변모, 소설사적 위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謾翁夢遊錄」[3]은 19세기 몽유록으로 전대의 몽유

1)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역락, 2012.
2) 김정녀, 『조선후기 몽류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3) 본 논문은 고려대 소장본 『만옹유고』와 장효현・윤재민 외, 「謾翁夢遊錄」,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록과는 변별되는 특징이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 장편화 경향을 보이는 몽유록 작품들과는 다르게 서사구조 및 유형화된 몽유록의 일반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만옹몽유록」[4]은 尹致邦(1794~1877)이 1869년에 지은 작품으로 『謾翁遺稿』(1961년 간행, 石印本) 권1에 실려 전한다. 만옹 윤치방은 정조~고종 연간을 살다 간 몽유록 작가이다.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양승민에 의해 「만옹몽유록」이 발굴되면서 몽유록 작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윤치방은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평생 향촌에서 살았던 보성에 거주한 향촌 사족으로 알려져 있다. 『만옹유고』는 2권 1책 석인본으로 1961년 증손 종래(鍾來)가 편집, 간행하였다.

우선 「만옹몽유록」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사년(1869) 구월 구일(중양절)에 不慍齋가 이웃 사람을 전송하며 술을 마시다가 거하게 취해 창벽 아래에 누워있다가 입몽을 한다.
② 문을 나가니 자신도 모르게 한 곳에 이르렀는데, 산수가 아름답고 그윽하였다. 자신의 仙緣을 기뻐하며 신선이 거할 것 같은 장소에 이르러 주변을 살피니 石室이 있었다.
③ 동자의 인도로 선인에게 가는데 불온재가 늦게 왔음을 탓하며 자신과 정취가 맞아 초대되었으니 함께 명산대천을 유람하기를 권한다. 이에 사양하니 구절장을 주어 쉽게 명산대천을 유람한다.
④ 중국의 泰山, 衡山, 華山, 恒山, 嵩山 등 五岳을 두루 둘러 본 뒤, 金陵, 箕山, 洞庭湖, 龍門, 滄水, 巫山, 楚伯王의 廟 등을 거쳐 太白山에 이르러서 선인이 술을 주며 13년 뒤에 천태산 아래로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⑤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다가 꿈에서 깨니 이미 아침이었다.

전대의 몽유록들이 치열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개인의 중국 산수 유람이라는 내용으로 사변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데, 이런 단형화된 몽

몽유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591-594면의 본문을 참조하였다.

4) 「만옹몽유록」에 대한 개별 작품 연구는 김정녀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작자와 작품 내용 소개 및 작품 분석을 통한 19세기 몽유록의 양식적 특성과 의의를 살펴본 성과가 의의 있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김정녀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정녀, 「〈만옹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유록의 특성 때문에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거의 모든 문학 장르에서 상당한 변모와 교섭이 있었고 몽유록도 예외가 아니어서 「만옹몽유록」 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선후기 문화적 경향과 자기 서사의 형상화

1) 조선후기 문화적 경향

18세기에 들어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해외체험이 가져온 문화충격과 상공업의 발달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의 담론이 시작됐다. 청대 『사고전서(四庫全書)』의 간행을 전후로 쏟아져 들어온 백과전서들과 정보의 범람은 북벌을 국시로 살던 조선에 세계화의 시대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한편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은 여러 계층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드러났다.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癖'이라고 할 만한 경향으로 소나무나 매화 분재 따위에 광적인 취미를 보이는 축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 사이에서 골동품의 수장과 감상 취미가 발생하고 이런 수요에 응해 분재를 길러서 파는 축이나 골동품을 중개 판매하는 자들이 등장하였다.[5] 도시민들 사이에서도 음악, 바둑, 화훼, 서책, 골동품의 수장 등 새로운 감각의 생활취미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났다.

전 시대의 천편일률적이고 의고적인 면에 대한 반발로 일상의 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개성 있게 나타내는 경향이 문단을 지배하게 되었다. 양반들뿐 아니라 서얼이나 경아전 등 여항 인물들이 시단을 형성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기존 시의 규범과 상투성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소재, 새로운 표현들이 제가끔 개성 있게 드러났던 것이다. 이야기물에 대한 관심이나 긍정적 인식도 높아져 다수의 야담집이 이 시기에 발간되었다.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도시적 복잡함을 갖춘 곳이 늘어나고 있었다.[6]

---

5)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60~161면.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관념적이고 公을 우선시하는 글쓰기보다 정적이고 私적인 글쓰기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조선 중기 당시풍의 유행 이래로 시의 문학성과 진솔한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는 심미적 계열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관심사, 사변적 일상, 반성과 성찰, 정감과 정욕의 분출 등이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개인의 취향 및 관심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개성을 발현하는 데는, 천진(天眞) 추구의 태도 및 소외된 자신을 남들과 변별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의식 등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문화적 경향을 볼 때 조선 후기 한문 산문에서 小品文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소품문은 신흠, 허균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맞았다. 소품문은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필치로 쓰는 것이 특징인데, 김영진[7]은 조선 후기 소품문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19세기 몽유록 중 단형화와 자기서사의 표출이라는 변모를 통해 독특한 작품군을 형성한 「금산몽유록」과 「만옹몽유록」은 이런 한문 산문의 제 경향과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이전 몽유록의 서사 전개 방식(좌정-토론-시연)에서 벗어나 작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서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몽유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비판의식이나 역사의식을 주된 성격으로 하던 전대의 몽유록들과는 달리 위의 작품들은 자신의 관심과 이야기로 서사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개성적인 자아 및 관심 분야를 스스로 드러내는 형상화 방식은'자기 서사'라 할 수 있다. 자기 서사란'저자가 자신의 삶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아의 사유와 감정 및 삶의 지향을 서술하거나 자신의 변모 양

6)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1999.

7) 김영진, 「조선후기 명청소품의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21-22면 : ① 글의 편폭이 비교적 작다. ② 서술 체제가 자유롭다. ③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자기 독백 및 내면 의식의 표출이 많다. ④ 개인의 신변잡사로까지 문학 소재의 확장이 있다. ⑤ 예술적 감수성, 자연과 생활, 인생에 대한 표출이 많다. ⑥ 문예미적, 수사미적 추구가 강하다. 美文을 지향한다. ⑦ 주관 감정이 개입된 심미 태도가 보인다. ⑧ 고문의 장중・엄숙함과 거리가 있다.

상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외부 환경 및 사건을 서술한 서사'[8]라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서사를 잘 보여주는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듬해인 임신년[1752] 겨울 나는 열병에 걸려 거의 죽을 번하였다. 11월 8일, 문득 경보를 길가에서 만나는 꿈을 꾸었는데, 검은 갓에 품이 넓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기뻐하는 마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있었다. 경보에게 말하기를, "산천재나 문경의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니 경보는 알았다고 하였다. 나는 문득 산천재가 황폐해진 게 너무 심해 차마 경보에게 보여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서로 이끌고 한 집으로 향했으나 또한 문경의 집이 아니었다. 방에는 화분에 심은 매화 한 그루가 있었는데 늙은 등걸은 돌과 같았으며 대략 두 자 남짓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경보가 평소 심었던 게 아니었다. 그때 경보가 홀연 보이지 않게 되어 끝내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다. 창망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꿈에서 깨어, 나도 모르게 한바탕 통곡을 했다. 꿈에서 만난 건 참으로 우연이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다.[9]

위의 글은 이인상의 몽기인데 영조에게 강직하게 간언하다 끝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吳瓚을 만난 꿈을 기록한 글이다. 오찬이 생전에 매화시를 보내어 이인상에게 회답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처 답하기 전에 그는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오찬의 죽음은 당시 동료 문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인상은 자신의 벗인 오찬을 꿈에서 조우했다가 허망하게 사라진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며 자신의 슬픔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주관적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심미적 태도가 보이는 것이다.

2) 자기서사의 형상화-몽기 및 산수유기와의 교섭

몽기는 주인공이 1인칭 자아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사 구조를 갖춘 허구

---

8) 안득용, 『한국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6면.

9) 李麟祥, 「追和吳敬父梅花八篇」, 『凌壺集』 卷2. "壬申冬, 余病瘧濱死, 至仲冬月八日, 忽夢遇敬父於街上, 皂冠博袍, 懽然如平昔, 余心知其已歿也. 謂敬父曰, 共之山天齋 或文卿之室, 叙話. 敬父諾之. 余忽自念山天齋荒穢已甚, 不忍使敬父見, 遂相將向一室, 亦非文卿之居也. 室中有盆梅一樹, 老查如石, 約二尺許, 亦非敬父平昔所植也. 敬父因忽不見, 竟不能交一語, 悵失惝怳, 覺來, 失聲一慟, 夢固偶會而有感觸中心者."; 박희병 옮김, 『능호집』, 돌베개, 2016.

의 장르가 아닌 사실적인 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성격, 창작 동인, 향유 기제 등 여러 각도에서 몽유록과는 변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8~19세기에 와서는 몽기도 이전 시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몽기가 출현하며 반경을 확장시킨다. 18세기에는 꿈이 사유를 반영한다는 큰 틀이 유지되면서도 유가적 수양론의 자장이 다소 약해진다. 李瀷과 李用休는 꿈은 생각을 반영한다는 논의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 이익은 상대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꿈꾸는 자가 깊고도 반복하게 생각한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용휴는 精魂과 神氣가 자연히 유통되고 끌어당기는 것이 꿈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앞선 성리학자들의 논의와 결을 같이하면서도 도덕, 수양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 점, 또 사유의 자연스러운 반영으로서의 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지닌다.[10]

그간 몽기 창작의 관심이 꿈보다는 꿈을 통해 얻은 것에 있었다면, 이제 자신의 꿈 그 자체를 응시하고 글로 적어두는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11] 작자 자신의 내면과 환경이 자기서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과 일상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점차 글감의 소재로 확장해간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 조금 자라서 배와 대추와 감이 윤기 나게 익은 것을 보았는데 그 색깔이 사랑스러웠고 그 맛이 달콤하여서, 이때에는 비록 몸은 그곳에 가 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과수원의 사이에서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며 즐거워하여 돌아오는 것을 잊었었다. 연주자와 악공들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琴筑管簫를 각각 연주하니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고 노소가 함께 기뻐하였다. 이때에도 몸은 비록 그곳에 가 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현악기와 관악기 사이에 있으면서 몰래 듣고 곁눈질로 보며 즐거워하여 돌아오는 것을 잊었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것도 역시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싫증이 나서 다시 흡족해하지 않았다.[12]

---

10) 하지영, 「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10면.

11) 양승목은 이렇게 후기가 사라진 형태를 '短型'의 몽기라 하였다. 양승목, 「조선후기 몽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164면.

정종로(1738~1816)는 영남남인학맥으로 이상정의 제자이다. 「無適公自叙」는 無適이라는 자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답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자기 서사인데, 성리학자 특유의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13] 성리학자의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글이라는 점에서는 특이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전의 성리학자의 글에서 보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재가 아니라 자신의 기호가 있는 개인 취향의 소재를 통해 성찰하는 글이라는 점이 독특한 것이다. 글의 소재가 자신의 신변잡사 및 개인적 취향으로 편폭이 확장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이 시기 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산수 유람의 폭발적인 유행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산생시켰는데, 소품문 중 山水遊記가 그것이다. 산수유기는 말 그대로 산수 간에 노닌 일을 글로 적은 것인데, 노정에 따라 견문한 사실을 일기체로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섬세한 관찰과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소품문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에는 산수유람기가 臥遊의 자료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원굉도나 장대 등과 같은 작가와 중국 문학의 영향이 우선적이다. 유람기의 수량을 연구한 사학자 저우전허(周振鶴)[14]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람기는 명대 전기·중기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嘉靖 연간(1522~1566)에 이르러 점차 많아져 萬曆 연간(1573~1620) 이후 대량으로 출현했다고 한다. 허균이 자신의 『閑情錄』에 중국의 呂祖謙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臥遊錄』을 응용한 것이나, 명나라의 『名山勝槩記』가 조선으로 유입된 것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文趣』[15]를 편찬한 김창협의 경우에도 산수유기는 오락으로서의 문학으로 개인화된 산문으로 애호되던 문체 중의 하나였으며,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12) 鄭宗魯, 「無適公自叙」, 『立齋集』 別集 卷4, 400~401면. "梢長而見梨栗棗柿, 爛漫成熟, 其色可玩, 其味可悅, 則當此之時, 身雖不往, 心則在於果園之間, 攀援摘取, 樂而忘返, 見有伶人樂工經過閭里, 琴筑管簫, 各奏其技, 則遠近咸集, 老少交懽, 當此之時, 身雖不往, 心則在於絲竹之間, 側聽縱觀, 樂而忘返, 然之數者, 亦會未幾何而厭之, 不復適也."

13) 안득용, 앞의 책, 79면.

14) 우런수, 『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2019, 282면에서 재인용.

15) 산수유기와 전원 생활의 한적함을 읊은 중국 역대의 글 139편을 모은 것이다. 특히 명대에 간행된 『名山勝槩記』에서 많이 참조하였다.

> 바람은 잔잔하고 이슬은 정결하니 8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물은 흘러 움직이고 산은 고요하니 북한산은 아름다운 경지이며, 豈弟洵美한 두 세명은 모두 아름다운 선비이다. 이런 아름다운 선비들로서 이런 아름다운 경지에 노니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
> 이런 아름다운 紫峒[자하동]을 지나니 아름답고, 세검정에 오르니 아름답고, 승가사의 문루에 오르니 아름답고, 문수사의 문에 오르니 아름답고, 대성문에 임하니 아름답고, 중흥사 동구에 들어가니 아름답고 (…)16)

위의 글은 조선후기 소품문의 가장 높은 성취의 하나라고 불린 李鈺(1760~1815)의 「重興遊記」 중 북한산 유람의 산수유기이다. 이옥 일행은 자하동에서 출발해 2박 3일간 북한산을 유람했는데, 유람의 아름다움을 '佳'라는 글자를 50번이나 쓰면서 평하고 있다. 고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글쓰기 방식은 산수유기를 비롯한 소품문이 자기서사를 드러내는 개인적 취향의 글쓰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흥유기」는 細目化의 방식을 통해 이 시기 산수유기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존의 산수유기는 형식적 제약이 비교적 엄격한 양식적 특징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 다양한 변화가 감지된다. 형식면에서는 노정에 따른 장편 일기체 산수유기에서 장소별로 절목화하거나, 작품의 길이가 짧아지는 소품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용면에서는 '癖'과 '癡'를 추구하는 심미적 경향이 다분히 짙어졌고, 주관적 서정의 침투도 현저하게 강화되어, 세계의 자아화를 지향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다루는 소재의 폭도 뚜렷이 확대되었다. 문체면에서는 섬세한 점묘적 묘사와 나열이 특징으로 지적된다.17)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수 유람은 자주 있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臥遊라는 형식의 산수 유람을 즐겼다. 와유란 몸은 누워있지만 정신이 노니는 것이다. 와유의 유행은 인공산인 假山을 만들거나 臥遊圖를 통해 유람을 즐기는 것 외에도 산수유람기인 와유록을 생산하는 것이 17세기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와유란 산수경승을 직접 탐방하는 眞遊 혹은 足遊와 대비되는 개념으

16) 李鈺, 「重興遊記」, 『潭庭叢書』. "風枯露潔 八月佳節也. 水動山靜 北漢佳境也 豈弟洵美二三子 皆佳士也. 以茲遊於茲 如之何遊之不佳也. 過紫峒佳 登洗劍亭佳 登僧伽門樓佳 上文殊門佳 臨大成門佳 入重興峒口佳 (…)"

17)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60면.

로, 산수유람을 기록한 遊記를 읽거나 山水畵를 감상하며 상상으로 유람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대개 실제 유람에 나서지 못할 때 글을 통해 追體驗함으로써 산수에 대한 심미적 욕망을 대리충족하는 것이다. 저명한 산수유기를 모으고 臥遊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러한 향유기제에 입각한 명명이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며 金壽增이 편집한 『臥遊錄』을 비롯하여 수많은 『와유록』이 생산되고 성행하는데, 당대 문인 사회의 유력한 문화 가운데 하나로 와유를 즐기는 것이 자리 잡았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18]

아름다운 산수를 보고 기록하는 와유의 형식은 꿈 담론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는데, 특히 몽기류에는 한 유형을 이룰 정도이다.[19] 이런 와유형 몽기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도된 새로운 양식적 실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색적 변화 또한 조선 후기 사회적·문화적 변화의 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옹몽유록」은 이런 일련의 조선 후기 문학의 양식적 변화와 교섭 관계 속에서 탄생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단형의 몽유록이라는 점 때문에 몽기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몽기는 1인칭 서술 시점을 취하여 사실적인 꿈을 자신의 경험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만옹몽유록」은 3인칭 서술 시점을 통해 조선 후기 문화적 경향과 문학 양식의 다채로운 변모를 차용하여 작품화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만옹몽유록」의 작품 분석을 통해 형상화 방식을 톺아보기로 한다.

3. 「만옹몽유록」의 형상화 양상과 특징

1) 「만옹몽유록」의 장르적 특성

「만옹몽유록」은 몽유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와유라는 단순하고 특이한 서술 구조 때문에 희필적인 작품이라던가 다른 서사 장르로 귀속될 의심의

18) 양승목, 앞의 글, 173면.
19) 양승목은 이런 유형의 몽기를 臥遊型 夢記로 분류한 바 있다. 양승목, 앞의 글.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먼저 몽유록으로서의 장르적 특징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몽기는 자신이 꿈꾼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1인칭의 서술시점을 취한다. 하지만, 「만옹몽유록」은 자신의 호이긴 하지만 '不慍齋'라는 제3의 인물로 대상화하였다. 몽유록은 3인칭으로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배적인 장르이다. 「安憑夢遊錄」, 「元生夢遊錄」, 「何生夢遊錄」 등의 몽유록처럼 제3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제목으로 삼는 사례가 많지만, 「達川夢遊錄」, 「龍門夢遊錄」, 「錦山夢遊錄」은 모두 「만옹몽유록」과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달천몽유록」의 몽유자인 坡潭子는 작자 尹繼善의 號이다. 「용문몽유록」의 몽유자인 黃溪子도 작자 愼屨의 호이며, 「금산몽유록」의 梧淵翁 또한 작자 金冕運의 호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호이지만 서사 전개를 제3의 인물처럼 객관화하고 대상화한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 서사 전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만옹몽유록」의 구성 방식은 비록 단형이긴 하지만 입몽-몽중-각몽의 구성 단계가 명확하다. 정돈된 서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꾼 꿈의 단상을 기록하는 몽기와는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물론 기존의 몽유록처럼 현실이나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은 없더라도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분위기, 대화, 시의 내용 등이 몽유록의 성격에 잘 부합하고 있다.

셋째, 몽기가 꿈의 기록을 통해 의미를 성찰하는 1인칭 진술의 후기가 큰 역할을 한다면, 몽유록의 후기는 꿈을 통한 자신의 성찰보다는 짤막하게 마무리 되거나 길더라도 몽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된다. 「만옹몽유록」도 각몽 이후의 기록은 이전 몽유록 양식의 특성과 유사하다.

> ① 깜짝 놀라 허둥지둥 급히 가다가 깨니 아침 해가 이미 창 위에 있었다. 정신이 혼미하여 태반은 잊어버리고 그 대강을 기록하고 읊기를, "한 번 선주를 마신 뒤에 몸이 가벼워지고 눈 또한 밝아졌네. 이에 내 꿈이 믿을만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거짓으로 꾸몄다고 말하리오."[20]

20)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錄篇. "驚愕匍匐而覺, 朝日已上窓矣. 精神昏迷, 太半忘之, 而錄其大槩, 遂吟曰, 一自飮仙酒, 身輕眼又明, 從知吾夢信, 豈曰搆虛成."

② 배가 찌르는 듯이 아파 문득 잠에서 깨어 보니 배는 북처럼 부풀어 불룩하고, 희미한 등불은 사그라질 듯하였고, 병든 아내는 옆에 누워 끙끙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가난하거나 고귀하게 하는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이니, 어찌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 모두 다 누릴 수 있겠는가! 괴상한 일이라 꿈속 일을 기록하니 가정[1522~1566] 8년 12월 상한이라.21)

③ 기미년[1739] 8월 2일 밤에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 내려다보니 산허리에 나무뿌리가 있는데 꼬불꼬불 휘감아 마치 綰帶를 두른 듯하였다. 내가 이에 훌쩍 날아 내려가, 발을 뿌리에 걸고 손으로 덩굴을 당기고 겨드랑이를 바위의 모서리에 꼈다. 서 있는 곳 아래에는 높다란 절벽이 천 길이라, 무서워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재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산의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해서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잡고 올라갈 것이 없었다. 묵은 뿌리 또한 흔들거려 견고하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에서 한탄하다가, 두려워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깨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 돌이켜 생각건대 나는 평소 어리석은 데다 제멋대로여서, 막말을 잘한다. 삼가지 않고 조심하지 않은 죄를 이루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법에 저촉되어 불신한 죄를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우니, 법에 저촉되어 수모를 당하고 오래토록 버려진 신세가 된 것이 당연하다. 오로지 세상의 군자가 너그러이 용서하고 꾸짖지 않는 것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몸과 이름이 모두 보존될 수 있었다. 비록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나 후회하는 마음을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벗 없이 한가히 거처하면, 세월을 나태하게 보내기 쉽다. 지금부터 전전긍긍하며, 꿈속에 위태하여 두려워했던 때처럼 한결같이 한다면 허물이 적어질 것이다.22)

①은 「만옹몽유록」의 마지막 부분이다. ②의 「대관재몽유록」과 비교해 봤을 때 결말 부분은 일반적인 몽유록의 결말 부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

21) 沈義, 「大觀齋記夢」, 『大觀齋亂稿』 卷4. "服心岑岑如刺, 蘧然而覺, 則腹漲如鼓, 殘燈欲翳, 病妻臥側, 呻吟而已. 噫! 人生於世, 窮達有數, 豈有覺夢兼之者? 咄怪而志夢. 時嘉靖八年季冬上瀚也."

22) 李秉休, 「記夢」, 『貞山雜著』 冊1. "己未八月二日, 夜夢登高阜之巔, 俯視山腰有樹根, 屈曲纏匝, 若綰帶然, 余乃率爾飛下掛足於根, 手引蔓葛, 腋持巖嘴, 而立脚底峭壁千丈, 怖不敢視, 奮迅慾上, 而岸勢窮然, 攀躋莫由所靠, 老根亦搏搖鮮牢意, 危迫憫歎, 悚然驚寐, 餘悸猶在矣, (…) 顧念余之平日讜騃狂披 能行悖說 不謹不愼之罪 難以枚數 宜其觸辟受汚, 長爲棄物, 而獨賴世之君子寬宥不嘖, 式至今日身名俱全, 雖自爲幸, 而噬臍之心, 何嘗頃刻忘也, 然閒居寡朋, 歲月易怠, 從今以往, 戰戰兢兢, 一如夢中危懍掉掉之時, 則可以寡過矣." 이병휴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 사람의무늬, 2013에서 해석을 참조함.

이미 몽중 서사에서 다양한 서사적 전개를 풀어 놓았기 때문에 각몽 이후에 현실을 깨닫고 기록한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몽유록 중에서도 「원생몽유록」과 「달천몽유록」, 「환몽과기」는 각몽 후의 서술이 길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1인칭 서술이 아니라 몽유 서사의 내용을 부연하여 제문을 짓거나 대화를 통해 진술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원생몽유록」에서 원자허는 꿈에서 깬 후 해월거사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를 지어 회포를 푼다. 「달천몽유록」에서는 몽유자인 파담자가 제문을 지어 몽중에서 만난 충절의 넋을 위로하는 제문을 짓고 마무리한다. 「환몽과기」에서는 홀아비가 과부와의 결연을 통해 성적 충족을 이루지만 각몽 후 욕망의 허망함에 대해 기몽헌 주인과 도가적 사유의 대화로 마무리되는 내용이다. 몽유록은 결구가 길건 짧건 몽중 서사에 집중되어 있어 각몽 후의 진술이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③과 같은 「몽기」의 경우, 사실적인 꿈의 기록 뒤로 이어지는 1인칭 시점의 후기가 내용상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시 스물 아홉이었던 李秉休는 자신이 꾼 악몽을 소상히 기록하고 그 악몽에 대해 내면에 비추어 성찰한다. 산은 험난하여 두려움을 주지만 잡고 올라갈 뿌리조차 견고하지 못함은 불안한 세상을 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기에서 자신이 조심해서 망령되이 굴지 않았다면 버려진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자성하는 것이다.

그가 꿈을 꾸었던 1739년은 바로 『大學』에 대한 해석서인 『大學心解』를 저술하였을 시기이기도 하다. 修身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대학』의 논리를 꿈을 통해 구현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이 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실수하면 명예가 손상되고 목숨을 잃는 지경에 빠져, 무고함을 해명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는, 살얼음 같았던 당대 현실과 그에 대한 경계를 보여준다. 역적으로 몰려 장살된 李潛에게 입후하여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던 그의 삶과도 맞물리는 꿈이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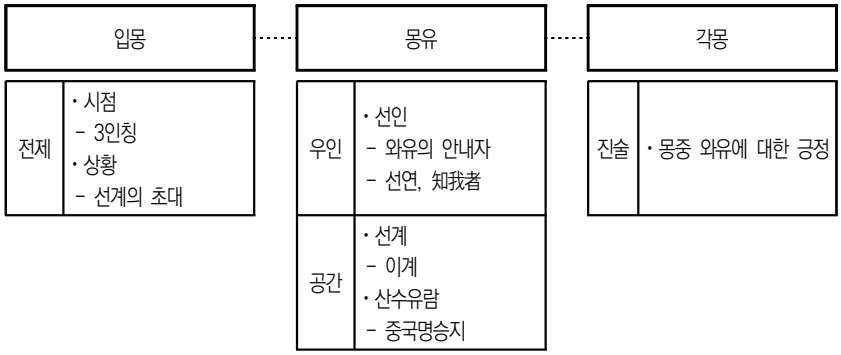
지금까지 「만옹몽유록」의 몽유록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만옹

23) 하지영, 앞의 글, 128면.

몽유록」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형상화 양상에 대해 톺아보고자 한다.

2) 遇人 및 仙緣의 형상화

「만옹몽유록」을 구조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도식 1〉「만옹몽유록」의 구조

기존 몽유록의 서술구조가 '좌정-토론-시연'의 3단 구성이라는 유형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만옹몽유록」에 와서는 이런 서술구조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므로 '입몽-몽유-각몽'의 몽유 소설과 같은 3단 구성으로 항목화하였다. 입몽은 '불온재'라는 몽유자의 선계로의 몽유로 시작된다. 이런 입몽 과정은 기존의 몽유록의 입몽 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 기사년[1869] 9월 9일에 불온재가 이웃 사람을 전송하며 술을 마셨는데, 술에 크게 취하여 창 벽 아래 누워있었다. 혼몽한 사이에 심기가 호상하여 양양한 것이 얻은 바가 있는 듯하였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으니, 이르기를 "들에는 벼가 이미 익었는데, 계절은 국화가 아직 피지 않았네. 중구절이 이 날이니, 서리 맞은 잎사귀는 꽃보다 아름답도다." 이에 일어나 문을 나가니, 곧 인도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홀연히 한 곳에 이르렀다. 산수가 아름답고, 아득하고 그윽하여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
> 마음속으로 홀로 기뻐 자부하며 말하였다. "지난날 술사가 있어 내게 이르기를, 늙으면 선가에 인연이 많다. 하더니 혹 믿을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이 무슨

> 가경인가? 신선이 있다 없다는 말이 비록 당황스럽지만, 만약 없다면 그만이려니와, 있다면 다만 이 산 중에 있으니 내 어찌 육칠십 리를 걸어 그치리오?" (…) 신선이 거하는 곳이 멀지 않을 듯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돌을 굽던 부엌과 단약을 만들던 단이 있어 신선의 자취가 어제와 같았다. 이에 자세를 고치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여 북쪽 절벽을 쳐다보니 푸른 복숭아 나무와 붉은 살구나무의 가지가 교차하여 울창하게 숲을 이루었으며, 어린 지초와 그윽한 향의 난초가 서로 한데 닿아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석실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그곳이 집이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날개가 돋힌 듯 달려가는 듯 계단 아래에 부복하여 배알한 즉, 동자로 하여금 인도하여 따라 들어와 당에 오르게 하였다.[24]

몽유는 혼몽한 사이에 잠이 들어 자신도 모를 기운에 이끌려 시작된다. 몽혼의 유람, 몽중 세계에 대한 긍정은 도교적, 불교적 사유에 근본한 것으로, 초월적 꿈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일종의 창작 논리로 작용하였다.[25] 「만옹몽유록」이 전대의 몽유록과 다른 점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부재와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이 없고, 공간 이동을 통해 선인을 만나는 것인데 이는 몽유자의 仙緣과 산수유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만옹몽유록」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간이 나타난다. 즉 입몽 과정에서 '불온재'를 꿈속으로 이끄는 선계와 선인이 이끄는 유람의 공간인 '중국의 명승지'라는 두 번째 공간인 것이다. '중국의 명승지'인 유람의 공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면서 작자인 '불온재'가 실제로는 가볼 수 없었던 환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을 체험하는 형태의 꿈도 몇 가지 계열로 추릴 수 있다. 선계 또는 이계를 방문하는 것, 아름다운 산수를 구경하는 것, 낯선 공간을 보는 것 등이다. 선계를 방문하는 경우는 자연, 선계의 인물을 만나는 것과 연결되는데,

---

24)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錄篇. "己巳重九, 不慍齋長進鄰送之, 酒大醉, 臥窓壁之下, 昏懜之間, 神氣豪爽洋洋乎, 如有所得, 遂吟一絶曰, 野色稻先熟, 天時菊未開, 重陽是日也, 霜葉勝看花, 因起而出門, 則如有引之者, 而忽忽焉至一處, 山佳秀麗, 幽閒(?)遙夐, 不可以言語形容. 心獨喜自負曰, 曾有術士謂吾, 老多仙緣, 倘或信耶! 不然, 此何佳境? 神仙有無之說, 雖曰唐荒, 如無則已, 有則只在此山中, 吾豈行六七十里而此乎? (…) 自料仙居之不遠, 顧眄左右, 煮石之竈, 鍊金之壇, 仙跡如昨, 乃改容整衣, 而越瞻北崖, 碧桃紅杏, 交柯叢鬱, 芳芷幽蘭, 相接忿馥, 而中有一石室, 果其攸廬也, 不覺翼如趨如, 而伏謁於階下, 則使童子引入隨而升堂."

25) 하지영, 앞의 글, 107면.

대개 자신의 선연을 확인하며 은연 중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수광의 기몽시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26]

「만옹몽유록」은 선계에서 인물을 만나는 遇人의 모티프와 산수유람(臥遊)의 모티프가 혼효된 작품의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의 신선의 말은 자신이 선계에 오게 된 이유와 선연에 대해 확신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 잠시 후 선인이 물었다. "그대는 오는 것이 어찌 이리 늦었는가?" 황공하여 겨우 대답하였다. "속세의 천한 선비로, 진세에 골몰해 있다가 선경이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연히 이곳에 이르러 창졸간에 늦게 왔다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 송구하여 할 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선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와 나는 情趣가 비슷한 것이 한둘이 있는 고로, 내가 초대하여 온 것이니, 우연이 아니다." 이에 자리를 사양하며 대답하였다. "저는 세상의 누추한 사람으로 어찌 천상의 신선과 서로 비슷한 정취가 있을 리가 있으리오. 더욱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하나는 志氣가 정대한 것이고, 둘은 생각[凡爲]이 맑고 고요한 것이요, 셋은 항상 산수를 유람하고자 하는 소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비슷한 것이니, 어찌 그것이 민망한 것이리오."[27]

여기에서 선인의 역할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불온재'가 선연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그를 알아주는 知我者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뒤에 이어질 산수유람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몽유자는 이미 술사에게 선연이 있음을 들었고 실제로 선계에 왔으며 선인으로부터 자신의 정취와 비슷하므로 선계에 올 자격이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志氣가 정대한 것이고, 둘은 생각(凡爲)이 맑고 고요한 것이요, 셋은 항상 산수를 유람하고자 하는 소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작자는 도가에 경도되어 선계와의 인연을 몽유록에 드러낸 것일까?

---

26) 양승목, 앞의 글, 29면. 한편 강민경은 이수광의 기몽시를 遊仙詩로 간주하였다. 강민경, 「李睟光 遊仙詩의 幻想과 超越」,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27)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錄篇. "有頃, 下問曰, 之子之來, 何其晩也? 惶恐僅對曰, 塵土賤生, 泊於鹽海, 不知仙鄕之在此, 偶然始至, 卒承來晩之敎, 悚戛不知所言也. 高笑曰, 子與吾, 氣味相似者有一二, 故邀以來之也, 非偶然也, 遂避席而對曰, 人世累生, 安與上界之仙, 有相似之理, 尤不敢承當也, 笑曰, 一則志氣正大, 二則凡爲淸靜, 三則常有遊覽山水之願, 此其似者也, 何其煩也?"

이것은 조선 후기 지식층의 일정한 경향과도 관련되는데, 도가적, 불가적 분위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경도되지는 않고 유가 선비임을 잊지 않는 자세이다. 이것은 모든 지식인의 바람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17세기 몽기류에서부터 나타난다. 李睟光은 특히 선취가 농후한 꿈을 많이 꾸었던 인물이다. 그는 승려들이 나립하여 자신에게 존경의 예를 갖추고 반야탕이라는 별계의 차를 받아 마시는 꿈을 꾸는데, 그의 道佛에 대한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스스로도 걸렸는지, 꿈을 적고 난 뒤 첫 마디가 자신이 유가의 선비임을 공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숙연이 있는 것인가 자문하고 백낙천과 왕안국을 떠올리며 유가에서 이탈하는 자신의 취향을 변호한다. 이 점에서 허균의 「몽기」와 아울러 꿈에 도불 취향의 인물을 보게 되는 경우 그로부터 자신의 分과 지향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을 형성하고 있음을 짚어둘 수 있다.[28]

「만옹몽유록」은 몽유자인 '不慍齋'라는 명명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작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작자인 謾翁 尹致邦은 그의 나이 30대 중반 즈음(1830, 37세)에 廣灘으로 옮겨 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堂號나 號를 老灘, 一癡翁, 不慍齋 등이라 하였으며, 공의 「家狀」을 찬한 尹炳斗는 이와 같이 호를 붙인 이유를 "모두 세상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9] 그가 광탄으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그는 학도들을 모아 강학을 하며 지낸 것으로 여겨진다. 만년에 윤치방은 다시 복내면으로 돌아와 호를 만옹이라 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30]

「가장」에 의하면 광탄에서의 우거는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

28) 李睟光, 「記夢」, 『芝峯集』 卷7. "癸丑九月十七日夜夢, 入一宮室, 制極壯麗, 庭除甚寬敞. 有緇髡百千輩, 列立如簇, 見余歡喜, 引余至堂中, 相與攢手作禮, 極其敬尊. 仍進一器茶湯, 曰 此般若湯也. 余飮之, 香味甚好, 覺神精爽快異常. 庭前置一爐, 香氣馥郁滿堂, 醒後, 了了可記. 噫! 余名教中人也. 所夢非其所想, 豈信道不專, 幻念猶在耶? 將宿緣未泯, 靈境斯現耶? 昔白樂天, 名在道山, 王安國, 夢爲仙子, 余非二子之比, 姑志其異." ; 양승목, 앞의 글, 98면.

29) 尹炳斗, 「家狀」, 『謾翁遺稿』 卷2. "揭號無我堂, 而若將終身焉, 此村素來蔑學, 而亦無可與知道也, 鬱鬱安能久留乎, 於是改無我堂, 而曰老灘, 曰一癡翁, 曰不慍齋, 皆不遇世之致也." 김정녀, 앞의 글, 301면에서 재인용.

30) 「墓碣銘」, 『謾翁遺稿』 卷2. "中年, 往依廣灘楸下, 揭扁無我, 而受徒講學, 若將終身, 晩復還故里." 같은 글에서 재인용.

로 자신의 학문을 펼치며 살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광탄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蔑學이어서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세상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늙어가기만 하는 상황을 호를 바꿔가며 지칭했던 것이다. 윤치방은 자신이 지은 「不慍齋序」라는 글에서 "73세의 나이에 무슨 구하는 바가 있어 일치로 고친 것을 또 불온이라 하였는가"라는 '知我者'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무슨 성낼 만한 일이 있어 성을 내리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무아라고 했고 노탄이라고도 했으며 일치라고도 하였다. 이는 곧 자연스러운 것이니, 어찌 감히 남을 탓하리오. 그대가 나를 꾸짖은 것은 진실로 옳으며 책선의 뜻에서 나온 것인즉 나를 알아주는 자로다."[31]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신의 학문을 펼칠 수 없는 공간에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과 쓸모없이 늙어가는 것만 같은 울울한 상황에서 「만옹몽유록」이 창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답답한 현실이지만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기서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들어 문인들의 문집 제목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명명을 취함으로써 외부와의 긴장관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달라진 자아의식의 양상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沈能淑은 자신의 문집 제목을 '훗날의 내가 알아주면 그뿐이다.'라는 뜻에서 『後吾知可』라고 했다. 역관 李弘載는 자신의 문집 이름을 『自笑集』으로 내걸었다. 또 유금은 자신의 글이 남 보기에는 말똥구리의 말똥처럼 하잘것없지만, 자신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는 뜻에서 『蜋丸集』으로 붙였다. 김용행은 자신의 문집 이름을 자질구레해서 볼 것도 없다는 뜻을 담아 『零零瑣瑣集』으로 붙였다.[32]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자아를 그려낸 자기 서사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다. 예컨대 거듭 비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性靈이 지키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남들에게 바보(癡) 아니면 미친 사람(狂)으로 인식되었다는

31) 尹致邦, 「不慍齋序」, 『謾翁遺稿』 卷1. "有何可慍之事而慍乎哉, 人不知我, 而曰無我, 曰老懶, 曰一癡, 卽是滄浪, 何敢尤人哉, 子之罪我, 誠是也, 出乎責善之義云, 則知我者."
32) 정민, 앞의 책, 125~126면.

내용을 피력한 梁居安(1652~1731)의 「六化翁傳」,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독서를 좋아하고 功利機數의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經은 알되 變을 모르고, 遠覽은 귀하게 여기되 近功을 가볍게 여겨 迂闊하다고 비웃음을 산 南有容(1698~1773)의 「自誌」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狂이 아니지만 남들은 狂이라 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에 능하지만 그들은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趙秀三(1762~1849)의 「經畹先生自傳」 역시 같은 류라고 할 수 있다.[33]

이렇게 조선후기 서사에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소외와 고독의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역설적으로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글쓰기, 즉 남들과는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새로운 경향이 형성되었다. 당시 문인들이 自撰墓誌銘을 지어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의식을 갖고 나만의 인생을 살았음을 드러내려 한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연구가 있다. 혹은 뜻을 함께하는 벗에게 부탁하여, 살았을 때 묘지명을 받아두는 生誌銘 쓰기 풍조도 꽤 유행했다. 이 또한 이 시기 지식인의 자의식 강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34]

윤치방이 자신의 호를 일치옹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선상에서 감지된다. 18세기부터 '癖'과 함께'癡', 즉 바보, 멍청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경향이 생겨나는데, 관습적 기준에서 볼 때 미쳤다는 의미를 지닌 '벽'이 사회적 통념으로는 '치', 즉 바보 멍청이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설치(雪癡), 치재(癡齋), 매치(梅癡), 간서치(看書癡), 석치(石癡) 등 치자가 들어간 이름이나 호가 부쩍 많아지는 것은 그 반영이라 할 수 있다.[35]

남들과 변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 문화적 경향은 「만옹몽유록」에도 나타나는데, 자신을 비하하거나 소외와 고독의 상황이 몽유록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의 몽유록과는 다른 서술구조 및 개성적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우인의 모티프 및 와유의 내용을 통해 몽기 및

33) 안득용, 앞의 책, 66~67면.
34) 정민, 앞의 책, 131면.
35) 같은 책, 13면.

한문 소품류 등 여타 문학 장르와의 교섭 양상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선인과 함께 하는 와유의 형상화에 대해 톺아 보고자 한다.

3) 산수유람(臥遊)의 형상화

불온재의 知我者인 선인은 유람의 공간이자 작품의 두 번째 공간인 '중국의 명승지'로 안내한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의 명승지'인 와유의 공간은 실제로는 현실의 공간이면서 작자인 '불온재'가 현실적으로는 가볼 수 없었던 환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 이곳을 떠나 축융봉에 올라, 주자가 소요하며 읊은 기상을 돌이켜 생각하고, 밑으로 임안에 이르러,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기이한 모습을 완상하였다. 다시 형산에 올라 육관대사를 방문한 즉, 천축으로 들어간 것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났다고 하였다. 개연히 화산에 이르러 陳摶[希夷]과 雲王의 자취를 살피고, 북쪽으로 가파르고 우뚝 솟은 항산과 승산의 수려함을 바라본 즉, 직방씨가 이른바 진산이 이것이로구나. 천자는 四維로 생각하고, 제왕은 四岳으로 생각하여 각기 그 주관할 사람을 두어 천자를 보필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였다. 비록 "다만 저 푸른 산"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의 믿는 바요, 백성의 의지할 바이니, 지극하고도 큰 것이다. 우러러보고 감탄하기를 오래하다가 金陵에 이르렀다. 금릉은 번갈아 대대로 제왕들이 몇 천 년간 도읍한 곳이니, 궁궐의 숭고함과 성곽의 웅장함으로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산천의 맑고 고운 기운이 푸르름을 머금었고 물색은 화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괴롭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하물며 다시 오악이 공읍하여 그 일대를 둘러싸고 있음에랴. 마땅하도다. 현인 군자가 그 가운데서 많이 나왔음이여.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賈太傅와 邵堯夫의 거처하는 곳을 물은 즉, 그 주변에 사는 사람 역시 기억할 수 없었다. 슬퍼 상심하기를 오래하였다.[36]

---

36)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錄篇. "離此, 上祝融峯, 追憶朱夫子浪吟之氣像, 而下至臨安, 翫龍飛鳳舞之奇異, 復登衡山, 訪六觀大師, 則入天竺者, 已有年矣. 慨然而至華山, 觀陳希夷雲王之浪跡, 北望恒山之崒兀, 嵩山之秀麗, 則職方氏所謂鎭山是也. 天地以爲四維, 帝王以爲四岳, 而各定所主之, 人佐天子, 而澤生民. 雖曰只麽靑, 其爲國家之所恃, 而生民之所賴者, 至且大矣. 瞻仰而嗟歎之久, 至金陵, 迭代帝王之幾千年所都也, 宮闕之崇高, 城郭之雄壯, 可以推知, 而佳氣蔥籠, 物色華靡, 令人神惱而心馳, 況復五岳拱揖, 一帶懷抱, 宜乎, 賢人君子之人, 多出其中, 歎美不已, 而問賈太傅邵堯夫之所宅, 則居人亦不能記, 愴然良久."

대부분의 조선 문인에게 중국은 갈 수 없는 나라였다. 따라서 중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보고 싶은 곳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을 읽고 와유하였다. 16~17세기 무렵 문인들의 동경의 대상은 西湖였다. 문인들 사이에서는 西湖圖나 杭州圖를 벽에 걸어두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명나라 田汝成이 평찬한 『西湖志』도 널리 읽혔다.[37] 『三才圖會』등에 수록된 관련 자료들도 유입되었다. 그러다가 관심이 중국 전역으로 넓혀지면서 중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유기 총서류들이 수입되기에 이른 것이다.[38] 명대 산수유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조선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산수유기의 편찬도 17세기 무렵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 16세기 말 琴悕(1571~1588)의 「周遊天下記」는 주인공 大觀子가 중원 천하를 두루 유람하고 천상 세계를 여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서울의 紙價를 올릴 정도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데, 유람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알 수 있다. 18세기 전반 송도를 유람한 기문을 모은 姜侯晉의 「와유록」이나, 19세기 金魯謙이 편찬한 「와유편」도 자신이 유람한 충청도, 금강산, 설악산 등에 대한 산수유기와 시를 모은 것으로 산수유기의 창작과 향유가 성행했음을 짐작케 한다. 산수유기의 성행은 시공간의 자유로움이 인정되는 몽기에서도 공통적인 향유기제로 작용한다.

> 금강산은 명성이 드높아 車馬 탄 자들이 沓至하므로 먼지와 오물이 날마다 쌓여만 갔다. 정유년[1777] 가을 8월, 하늘에서 큰비가 내려 이를 한번 씻어내자 본래의 자태가 그제야 드러나게 되었다. 글 잘하고 기이함을 좋아하는 선비 申文初가 그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전에 본 것은 병든 모습에 때낀 낯짝이요, 이제 볼 것은 세수하고 몸단장하여 손님을 맞는 때다. 문초가 이 때에 유람을 하니 다행이로다. 문초가 동으로 떠나는 때는 나라 안이 식년을 맞아 과거 볼 선비들이 시험에 나가는 날이니 이는 또 선인과 범인의 길이 나뉘는 곳이기도 하다.[39]

---

37) 이종묵,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98면에서 재인용;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남령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8) 이종묵, 앞의 글, 98면.
39) 李用休, 「送申文初金剛山序」, 『惠寰雜著』 7冊. "山以名高, 車馬沓至, 塵穢日積. 丁酉秋八月, 天大下雨, 一洗之, 本相及見. 士有文而好奇者申文初, 聞而往焉. 譬之於人, 前之所見者, 卽其病貌垢面也, 今則盥沐改容以肅客之時. 而文初適當焉, 幸矣. 文初之東遊, 乃値國內中式, 擧人赴試之日, 此又仙凡分路處也." 박동욱

위의 글은 惠寰 李用休(1708~1782)의 글인데, 금강산 유람을 가는 벗에게 보낸 送序이다. 큰비가 내린 이후 산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좋은 때에 벗이 유람을 가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하며 친구의 유람을 신선에 비유한 착상이 기발하다. 이 송서를 통해서도 당시 산수유람기가 얼마나 생활 전면에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다.

불온재는 선인이 준 난양주를 마신 뒤, 구절장의 도움으로 중국의 泰山, 衡山, 華山, 恒山, 嵩山 등 五岳을 두루 둘러 본 뒤, 廬山瀑布, 祝融峯, 臨安 등과 현자가 많이 나온 金陵, 箕山, 洞庭湖, 黃陵廟, 龍門, 滄水, 巫山, 楚伯王의 廟 등을 거쳐 太白山에 이르는 대장정을 한다. 몽유자가 유람한 중국의 명승지는 조선의 지식인들이라면 한 번쯤 호연지기를 기르고 옛 성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유람하고 싶은 꿈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만옹몽유록」의 이런 정황은 와유록의 성행으로 나타난 覽勝圖와의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八仙臥遊圖』에 수록된 「八仙臥遊圖記」에 남승도의 연원과 놀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남승도는 본디 王世貞이 만든 것으로 중국의 명승을 판 위에 늘어놓고 구획을 나누어 아홉가지 종류로 제비를 뽑아 편을 나눈다. 그리고 明瓊을 던져 점수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유람하는 길을 정하는데, 가는 곳에 따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는 조선에 전해져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었다고 한다.[40] 명승지는 조선의 명승지가 되기도 하고 중국의 명승지가 되기도 하는데, 주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놀이였지만 유림층에서도 하였다고 한다. 비록 명승지를 유람하는 것은 도표 위에서지만, 명승마다 다양한 문체의 시문 및 명승고적, 풍토를 익히고 즐기게 되어 마치 산천을 유람하면서 노니는 것과 같은 와유 문화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만옹몽유록」에서는 몽중이지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와유에의 욕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옹몽유록」이 오로지 산수유람의 의지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불온재의 여정을 보면 단지 중국 명승지를 '여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역, 『나를 찾아가는 길(혜환 이용휴 산문선)』, 돌베개, 2014.에서 해석을 참조함.

40) 이종묵, 앞의 글, 103면.

그 공간을 통해 유불도에 상관 없이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태도에 있다. 그는 축융봉에 올라 주자가 소요하며 읊은 기상을 생각하고, 형산에 올라 육관대사를 방문하고, 화산에 이르러 진단과 운왕의 자취를 살피기도 한다. 또 가태부와 소요부의 거처를 몰라 슬퍼 상심하기도 한다. 작자가 살았던 19세기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교섭하던 시기로 유학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지식과 사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편벽된 공간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 수 없는 현실과는 달리 자유로운 몽중 세계의 공간에서 그는 와유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지식을 추체험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초패왕의 묘에 이르러서는 작품 전체를 통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간결하게나마 나타난다.

> 물을 따라 가다가 동쪽을 바라보니 초패왕의 묘가 있었는데, 그 기상을 우러러 본즉 진실로 천하의 영웅이었다. 장차 나아가 참배하고자 하였는데, 옷자락을 잡아끄는 바람에 태백산에 이르게 되었다. [선인이] 노하여 질책하였다. "항왕은 비록 영웅이긴 하지만 무자비하고 교활하여 남을 해친 사람이다. 더욱이 그 임금을 시해하고 스스로를 세웠는데, 어찌 참배할 마음을 지니리오?" 이에 심기가 갑자기 불편하여 두려움에 떨며 땀을 흘렸다.41)

초패왕인 항우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진나라에 항거하고 용감했지만 불운의 영웅이라는 동정적 평가와 군주인 의제를 시해하고 엄청난 살육을 일삼은 잔인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그것이다. 작자는 선인과 불온재의 의견을 통해 항우에 대해 유교 질서를 파괴한 인물이라는 부정적이고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항우가 자신의 군주인 의제를 시해한 것은 유가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가치관을 뒤엎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향촌의 이름 없는 사족이지만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의병에 가담하고 향약을 설치하고 성인의 사당을 정비하는 삶을 살았던 작자의 생애를 통해 볼

41)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順流而東見, 有楚伯王之廟, 仰觀氣像, 則眞天下英雄也. 將欲施禮, 摻裾曳之, 而至太白山, 怒叱曰, 項王雖英雄, 殘忍猾賊者也. 況弑其主而自立, 寧有施禮之心乎? 心悸氣急, 汗出戰慄."

때, 항왕에 대한 진술은 유가 지식인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諸馬武傳」이 진승・오광과 같은 반란 세력을 인정하고 항우를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여 기존의 역사관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 「만하몽유록」에서 항우의 묘를 보며 난세의 영웅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볼 때 역사 평가에 있어서도 개인 주체의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유가적 지향은 다음에도 나타난다.

> 홀연히 동자가 있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니 바위가 홀연히 스스로 열려 술과 금잔이 나왔다. 술을 가득 따라 주기에 두 손으로 받아 마신 즉, 마음이 밝게 환히 뚫리고 골격이 강경하여졌다. 황공한 중에 또 다시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싹터 엎드려 청한 즉, 선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만일 또 마신다면, 갑자기 세상사를 잊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지니 여러 말 말고 13년 후에 천태산 아래로 나를 찾아오라." 홀연히 보이지 않았으며, 그 지팡이를 찾은즉, 역시 그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42]

『史記』의 留侯世家편에 나오는 黃石老父 이야기의 패러디인 듯한 위의 글은 자신이 漢高祖를 보필한 張良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작자의 욕망이 표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유후세가에서 황석노부는 다리 위에서 만난 장량에게 『태공병법』을 주며 그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며 십년이 지나면 제왕을 흥하게 할 수 있다고 예언한다. 그리고 십삼년 뒤에 제북에서 만나는 곡석산 아래의 황석이 자신이라고 말한다.[43] 한고조가 장량을 만나고서야 천하를 도모한 것처럼 작자도 장량과 같이 인정받고 세상에 쓰이는 삶에 대한 지향이 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선인은 황석노부처럼 불온재를 알아주는 지아자의 역할을 끝으로 홀연히 사라지며 몽유자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말미를 통해서 「만옹몽유록」은 몽유를 통해 당시의 풍조였던 산수 유람을 체험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삶에 대

---

42) 尹致邦, 「謾翁夢遊錄」, 『謾翁遺稿』 卷1, 錄篇. "忽有童子, 以杖叩巖, 巖忽自開, 出玉壺金盞, 滿酌與之, 雙手奉飮, 則心肝通明, 骨骼强硬. 惶恐中又萌復飮之心, 伏請則笑曰, 如復飮, 頓忘世事, 無歸家之思, 不多言, 後十三年, 訪我於天台山下. 因忽不見, 求其杖, 亦不知去處."

43) 『史記』 卷55 留侯世家.

한 지향을 이루었다. 즉 꿈을 통해 개인 주체의 내면과 사유를 표현하는 자기 서사로 형상화된 것이다.

4. 나가며

「만옹몽유록」은 조선 후기 문학의 양식적 변화와 교섭 관계 속에서 탄생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단형의 몽유록이라는 점 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많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문화적 경향과 문학 양식의 다채로운 변모를 차용하여 작품화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만옹몽유록」은 이전 몽유록의 서사 전개 방식(좌정-토론-시연)에서 벗어나 작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서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몽유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현실비판의식이나 역사의식을 주된 성격으로 하던 전대의 몽유록들과는 달리 자신의 관심과 이야기로 서사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즉자적 자아 및 관심 분야를 스스로 드러내는 형상화 방식은'자기 서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내면과 일상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점차 글감의 소재로 확장해간 것이다.

한편, 한문 산문에서 小品文은 일군의 변화를 통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맞았다. 소품문은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필치로 쓰는 것이 특징인데, 19세기 몽유록 중 단형화라는 양식적 변모를 통해 독특한 작품군을 형성한 「금산몽유록」과 「만옹몽유록」은 이런 한문 산문의 제 경향과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몽기는 주인공이 1인칭 자아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사 구조를 갖춘 허구의 장르가 아닌 사실적인 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몽유록과는 변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8~19세기에 와서는 몽기도 이전 시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몽기가 출현하며 반경을 확장시킨다.

조선 후기 산수 유람의 폭발적인 유행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는데, 소품문 중 山水遊記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수 유람을 할 수 없을 때 와유록을 통해 충족시키기도 했다. 실제 유람에 나서지 못할 때 글

을 통해 追體驗함으로써 산수에 대한 심미적 욕망을 대리 충족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산수를 보고 기록하는 와유의 형식은 꿈 담론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는데, 특히 몽기류에는 한 유형을 이룰 정도이다. 이런 와유형 몽기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도된 새로운 양식적 실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옹몽유록」은 이런 일련의 조선 후기 문학의 양식적 변화와 교섭 관계 속에서 탄생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만옹몽유록」이 전대의 몽유록과 다른 점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의 부재와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이 없고, 공간 이동을 통해 선인을 만나는 것인데 이는 「만옹몽유록」이 자신의 仙緣과 산수 유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만옹몽유록」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간이 나타난다. 즉 입몽 과정에서 몽유자인 '不慍齋'를 꿈 속으로 이끄는 선계와 선인이 이끄는 유람의 공간인 '중국의 명승지'라는 두 번째 공간인 것이다. '중국의 명승지'인 유람의 공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면서 작자인 '불온재'가 실제로는 가볼 수 없었던 환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만옹몽유록」은 선계에서 인물을 만나는 遇人의 모티프와 공간 유람(臥遊)의 모티프가 혼효된 작품의 특징을 보여준다. 선인의 역할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불온재'가 선연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그를 알아주는 知我者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뒤에 이어질 산수 유람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자의 호 중 하나가 一癡翁이라든가 몽유자의 이름이 불온재라는 것은 울울한 현실이지만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기서사가 역설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사에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소외와 고독의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글쓰기, 즉 남들과는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새로운 경향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남들과 변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 문화적 경향은 「만옹몽유록」에도 나타나는데, 자신을 비하하거나 소외와 고독의 상황이 몽유록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몽유록과는 다른 서술구조 및 개성적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만옹몽유록」은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나 서술구조에 있어 새로

운 형태를 실험하여 몽유록의 양식적 역동을 보여주었다. 또 비슷한 변모 양상을 겪었던 타 문학장르와의 교섭을 통해 19세기 서사 장르의 특징과 문예적 현상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꿈을 통해 개인 주체의 내면과 사유를 표현하는 자기 서사로 형상화된 것이다.

▮ 참고문헌

李麟祥,「追和吳敬父梅花八篇」,『凌壺集』, 韓國文集叢刊 제225집, 民族文化推進會.
李秉休,「記夢」,『貞山雜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睟光,「記夢」,『芝峯集』, 韓國文集叢刊 제66집, 한국고전번역원.
李鈺,「重興遊記」,『潭庭叢書』.
金鑢,『潭庭叢書』1, 卷之一 - 卷之六, 학자원, 2014.
李用休,「送申文初金剛山序」,『惠寰雜著』, 필사본 6책, 국립 성호문고.
박동욱 역,『나를 찾아가는 길(혜환 이용휴 산문선)』, 돌베개, 2014.
沈義,「大觀齋記夢」,『大觀齋亂稿』, 韓國文集叢刊 9권, 民族文化推進會.
尹致邦,「謾翁夢遊錄」,『謾翁遺稿』, 고려대도서관 소장.
이병휴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 사람의무늬, 2013.
장효현・윤재민 외,「謾翁夢遊錄」,『교감본 한국한문소설 몽유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591-594면.
鄭宗魯,「無適公自叙」,『立齋集』, 鄭宗魯, 韓國文集叢刊, 제 253~254집, 民族文化振興會, 2000
『名山勝槩記』, 高麗大圖書館 所藏.

강명관,『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강민경,「李睟光 遊仙詩의 幻想과 超越」,『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271-294면.
김영진,「조선후기 명청소품의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정녀,「〈만옹몽유록〉 연구」,『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297-334면.
_____,『조선후기 몽류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신재홍,『한국몽유소설연구』, 역락, 2012.
안대회,『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1999.
안득용,『한국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양승목,「조선후기 몽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우런수,『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2019.
이인상, 박희병 옮김,『능호집』, 돌베개, 2016.
이종묵,「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98면.
정 민,「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남령과 서호도」,『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10-306면.
_____,『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하지영,「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10면.

【Abstract】

The Shape and Features of "Manong Mongyurok"

Yang, Hye-Seung*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19th-century Mongyurok, "Manong Mongyurok". Although it was not recognized for its unique monolithic Mongyurok, it was focused on the fact that it was a Mongyurok that was made into a work by borrowing various modifications of cultural trends and literary sty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anong Mongyurok" is developing the contents of Mongyurok by securing the author's own free narrative, away from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previous Mong Yurok. He is turning the narrative to his own interests and stories. The formative style of self-explanatory and self-exposing areas of interest can be called 'self-description'. Personal inner and personal stories have expanded to the subject of writing.

Mongyurok was crea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formative changes and negotiations of literature, such as the monolithic and historical changes of props, the trend of the landscape tour, and the emergence of Wa Tangible Mong.

There are two forms of space in the "Manong Mongyurok" . The first is the second space called "China's Scenic Site", which is the ideal world that leads sleepwalkers into dreams during the process of dreaming. The space of travel, which is a famous place in China, is a space that exists in reality and a fantasy space that the author could not actually go.

The "Manong Mongyurok"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mixed with the motif of meeting people in the ideal world and the motif of space travel. There are two roles of xian. It confirms that 'Bulonjae' has an Taoist connection and also serves as a guide to natural travel and recognizes his valu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new trend was formed, with unique writing and different tastes and personalities. This trend is also shown in "The Manmongmong Yurok", which is not clearly evident in the work itself, but is also revealed through the names of the author and the dreamer, and can be seen through narrative structure and

* Lecturer, School of Liberal Arts,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ividual contents. It is shaped into a self-description that expresses the inside and the reason of the individual subject through the dream.

Keywords: “Manong Mongyurok”, Monotype, Literary Style, Change, Negotiation, Self-Description, Cultural Trends.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30.